

2017년 5월 20일, 구좌읍 동복리 동복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정정심(여, 1938년생, 구좌읍 동복리)

- 줄거리: 표선읍 토산리에 기원을 둔 뱈 신앙에 대한 전설이다. 이 뱈은 특히 딸들에게 대물림 된다고 알려져 있다. 한 남자가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포대쌈을 해와 결혼하게 되었는데, 여자는 토산 사람이었다. 결혼식날 새각시가 방석에 앉았다 일어나니 그곳에 노란 뱈이 있었다. 이 뱈신은 토산리 여자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따라 온다고 전하며, 시집을 가게 되더라도 토산당이라 불리는 이 뱈을 모셔야만 가정에 풍파가 없었다고 한다.

[제보자] 저 옛날 그런 말도 우리 들어낫저게.

저 토산, 토산 만약에 여기에 사람덜이 거기에 몰랑 시집 가면은 그 토산 베염이 여자신디덜 우리 저 그기 ○○○ 어멍이 이제, 각시 놔뒀 이제, 어디 강 이제, 여자가 곱닥헌 여자 잇이난 이제 푸데쌈 헤왓어.

경 핸 결혼을 허젠텁이, 저 결혼헤연 이제 새각시가 영 앗아난디. 방석 잇이난 새각시가 일어사부난 그 방석을 영 앗앙 보난 노랑헌 베염이이? 노랑헌 베염이 그이 꿀앙 앗는 좌부동 아래, 그 노랑헌 베이 잇언.

거난, 여자신디는 경 토산당 베염이 경 온덴. 경 허민 그 토산당을 이제 어디 동산이라도 가그네에 어디 강그네에 밥 헤연 모셔사 허고. 모시지 않으면은 막 망허게 허고. 여자에만 들른덴 그 뚫만.

- 핵심어 : 토산, 베염, 푸대쌈, 결혼, 방석, 노랑헌 뱈, 토산 뱈신, 정의 귀신, 뱈, 새각시